

자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그대



불교는 염세적인가?

대하시절 가을맞이 시낭송회를 기획한 적이 있다. 해서 유명한 여류시인인 H씨를 초대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분이 재직하고 있던 대학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시낭송회에 오셔서 신작시를 낭송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분은 흔쾌히 허락을 하며, 동국대학은 문화적 전통이 오랜 대학이라 오히려 영광이라고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당혹스러웠던 것은 필자가 불교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말을 듣고는 자신도 예전에는 불교를 믿었지만 교리를 공부할수록 염세적인 것이 싫어서 개종했다는 말이었다. 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할 수도 없는 일이고, 본인이 판단하여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호오를 논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불교를 염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분의 불교관에 대해 자못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부탁하러 간 처지에 교리에 대한 논쟁을 일으킬 수도 없는 일인지라 웃으면서 헤어졌지만 한동안 나의 뇌리는 그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불교는 정말 염세주의적 종교인가? 물론 불교는 염세주의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여류 시인은 불교를 왜 염세적인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안 되었을까? 불교의

한 불인과 불만 때문에 이것들을 고라 본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미운 사람과 만남 등은 모두 욕망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심리적 정신적 결핍에서 발생하는 불인과 불만이다. 또한 욕심이 왕성하여 발생하는 불인과 불만 등이 있다. 인간이란 숨쉬고 있는 한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불인과 불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살아가면서 소유와 자아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벽에 막혀 불가능하게 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실현되지 않으면 번민하고 괴로워하게 된다. 이런 것은 또한 우리들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문제는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맹목적이지도 않으며, 맹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아함경>에서는 불인과 불만에 대한 구체적인 발생과정을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여섯 기관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섯 기관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사귀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짝이 되지 못하면 불인과 불만이 쌓이게 된다고 말한다. 인식의 대상이나 접촉, 감수 작용, 지각 작용, 의지와 행동, 애욕의 경우 등도 마찬가지로 본다. 오감과 마음을 충족시키

욕망에 사로잡혀 고통·비관 자초  
혹의 원인 해결위한 노력해야

7.르침 중에서 가장 중시하는 4성제 중에서 첫 번째가 고성제이며, 고성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8고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분은 이 고성제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고성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4성제 중에서 고성제와 집성제는 일반적인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결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괴로울 고(苦)자를 불어 성스러운 진리라 말한 것은 아니다. 고(苦)는 범어인 두카(dukkha)를 번역한 말이다. 두(du)와 카(kha)의 합성어인데 두는 혐오한다는 의미이며, 카는 공허하다는 의미이다. 혐오와 공허함이 겹쳐서 상락아정(常樂我淨)이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 따라서 한문으로 번역할 때 고(苦)라 번역한 것이다. 고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현대의 학자들은 불인과 불만으로 정의한다. 이 세상은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리들을 불인과 불만으로 내몰고 있으며, 나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求不得苦),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怨憎會苦),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愛別離苦), 욕심이 왕성한 것(五陰盛苦) 등이 우리들을 불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태어남, 늙음, 병들, 죽음 등은 모두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다. 결국 실존에 대

지 못하면 그 자체가 우리들을 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들의 오감을 스스로 통제 내지 절제하고, 그것들이 결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임을 인식한다면 불인과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본다. 기실 사람은 누구나 대통령, 법관, 장관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그 직업이나 직책이 가져오는 권위나 명예, 권력 등 때문이라면 설사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아무리 부귀영화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불인과 불만을 소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화가 무쌍하며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대부분 현실과 사회현상을 직시하지 못한다. 여기서 개인적인 불인과 불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인과 불만까지 고조되게 된다. 결국 괴로움으로 표현되는 불인과 불만은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욕망이자 야수성이다. 그것이 순화되지 않는 한 인간세계는 불인과 불만 속을 헤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 삼십년설위원·불교학 박사>

22년 전 불, 부산 대가시에 들렀던 어느 스님은 불도 커지 않은 어둠한 곳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작업중인 두 사람과 마주쳤다. 그 사람들은 어린이 범죄 안내장 발송 작업을 위해 잠깐 시간을 내어 안내장을 봉투에 넣고 있었다. 누구도 어린이 포교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두 사람은 아무런 대가도 돌아오지 않는 어린이 범죄를 위해 시간을 쪼개 직접 통사기를 넣어 안내장을 만들고 우편물을 발송까지 해가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이 두 사람과 마주친 스님은 이미 여러 차례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그 조사의 대표를 맡아 달라는 청을 받았지만 거절했었다. 그러나 이날 스님은 두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그 청을 수락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 스님이 바로 지금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맹 총재로 우리나라 어린이 포교의 상징이요 선구자인 정관스님이다.

“그날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를 알았을 때, 감동으로 마음이 뭉클했어. 스님들도 외면하는 어린이 범죄를 위해 직장 생활 틈틈이 시간을 내서 직장 상사 눈치 보이며 어린이 범죄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니, 스님인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종단의 지원은 물론이고 스님들의 관심조차 없었던 어린이 포교를 시작해놓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그때 함께 고생했던 보람이 지금에야 하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2년 전 영주암 학생회 출신들이 영주암 마당에서 뛰놀던 옛 추억을 못 잊어 아이의 부모가 된 지금도 범죄를 예방하는 걸 보면서 포교 투자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직장과 결혼 등으로 전국에 흩어진 이들은 정기 법회가 어려워지자, 인터넷을 통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12월 28일에는 영주암에서 같은 추억을 가진 전국 불자들을 모아 법회를 불 계획도 세워놓았다. 스님이 뿌린 씨앗이 알차게 영글고 있다는 증거다.

“특별한 불교관이 없었다면 계속할 수 없었을 정도로 힘도 들었지만 즐거움도 있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컸지. 누구 한 사람도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또 당장 표는 포교 성과가 없어도 선생님들과 도움을 주셨던 스님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로 맞아떨어졌기에 힘든 줄조차 모르고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정관스님은 어린이 포교를 위해 걸어온 지난 세월을 ‘살얼음판을 걸어온 시간’이라고 비유하면서도 보수를 준 일도 없고,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 일에 마음 하나를 정성을 다했던 선생님들과 그 가운데서 신심을 키워왔던 아이들이 있어 스님의 하루하루는 행복했다고 회고했다. 아무리 고통스런 일이 있다 해도 즐거움만으로도 살아가는 기쁨에 비하면 그 고통은 햇빛 비처럼 저절로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나는 출가생활에 늘 감사함과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출가의 기쁨은 가진 게 많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으로 등기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어요. 그것은 모두 부처님 말씀을 따라 내면을 풍부하게 가꾸었기 때문인 거예요.”

스님은 물질 단념으로 생겨난 인간의 정신적 허기, 갈등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참선이나 염불 등의 수행을 통해 내면성을 가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 애완동물이만 8천 종류나 수입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현대인들의 고독과 정신적 허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모두 정 물일테가 없으니 동물을 키워서 내면의 허기를 채우려 하지만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 채우면 또 하나 부족해지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죠. 그러나 이제 일시적인 쾌감을 주는 일에서 벗어나 내면의 영적 지식을 높이는 일에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곧 참선이고,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내면을 치유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길은 바로 불교에 있습니다. 선을 통한 내면의 정화만이 물질이나

“잘 산다는 것은



◊ ‘염불하는 이놈이 뭐꼬’ 회두를 들고 있는 정관스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한희지보살처럼 살고 싶다는 원으로 정진한다.

정관

정관스님은?  
어린이 포교

내 내이는 스무살 부증불감이라고 환한 스님은 1933년 경주에 나서 원호스님을 주안을 입고 원호스님처럼 갖는 원을 세웠던 스승께 갖던 불국사에서느 풍경소리의 편안함과 경했다. 그러다 15세 라진함아름보고 싶 저러게 느낀 스님은 경주포교당에서 동산 법문을 듣고 환희심을

순간적이 쾌락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요.”

스님은 이어 외부세계, 물질 세계에만 온통 마음을 뺀 현대인들은 이제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한다고 우리의 내면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외부의 조건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길은 무엇인지 한번쯤은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 방엔 개구리 한 마리 없어도 나는 지금 부자요, 행복합니다. 하하하! 이 행복과 부유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나 스님의 맑은 표정을 지켜본 비법은 어린이들과 함께 한 시간만큼이나 한결 같은 스님의 투철한 수행에서 비롯된다. 매일 새벽 3시 10분엔 시작되는 스님의 일과는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 하루도 빠지지 않는 염불 정진으로 채워진다. 오래 전 젊음을 쫓기 위해 서서 하는 염불을 택했던 스님은 지금까지도 염불을 하며 ‘염불하는 이놈이 뭐꼬’ 하는 회두를 행하는 방법으로 참선과 염불이 병행된 수행법을 이어오고 있다. 간단한 보건 체조, 공양 시간, 여 불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스님은 정진으로 보낸

정신적 허기 수행·염불로 해결  
매일 佛자 10장씩 쓰기 30년 계속

요? 그것이 오는 근원을 알아내는 사람만이 물질 만능으로 인한 인간 고독을 해결하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 없어도 행복하며 며 깔깔 웃는 스님의 얼굴이 어느새 천진무구한 어린이의 얼굴이 된다.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 때문일까? 눈빛 하나 정감하는 것조차 어린이들에게 맞추며 살아온 스님의 웃음엔 얼굴은 활짝의 나이와 맞을 수 없을 정도로 해맑다. 그 얼굴은 평생 동안 새까맣게 되어온 스님에게 뒤늦게 주어진 부처님의 훈장처럼 느껴진다.

다. 두 시간 정진하고 두 시간 쉬면서 이어지는 정진은 밤 9시 30분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된다.

“내 하루 수행이 곧 내 하루 농사인 셈이지. 농부의 농사가 곡식 잘 키우는 것만으로도 출가 수행자의 농사는 바로 수행인 것이요, 농부가 농사를 게을리 하면 수확할 것이 없듯이 출가자가 수행을 게을리 하면 풍요로운 마음밭을 가꿀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스님의 농사는 염불 참선 외에도 또 한 가지가 있다. 매일 열장의 ‘불행’ 자를 쓰는 것이다. 벌써 30년 이상을 꾸

**간(肝)의 건강**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의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린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이리에 넣고 원저 9기마니를 달은 뒤 원저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 기름을 추출한 후 향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원저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60부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지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 116
- ◆ 대 상: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주하고자 하는 모든 분과
- ◆ 정 원: 24명~30명 내외
- ◆ 시설개요: 본 건 물 → 방규모(약 7명) 24실(각실 인토분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 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 ◆ 입방비부담: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 ◆ 연 락 처: 전화 031) 759-5320 팩스 031) 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아름 자광원에서 경험한 것을 이어 전민지역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원 위한 기도처입니다.
- ▶ 의롭고 우물거지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년층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른 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인연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분
-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운 분

지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지광원**

**21세기 암 치료 혁명**

**대체 요법의 참된을 달리는 아라비늑실란**

이제 ‘서양 의학으로는 암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대체 요법이다. 본사의 김수자원 의사 오비츠 이렇게 말한다. “현재 전미(全美) 125개의 대학의 의학부 가운데 실로 75개 대학이 대체 요법 부문을 신설하고 있다. 그 흐름은 성년 파도파도 같다. 일본에서도 의료 현장에서 대체 요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합리적,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는 아라비늑실란에 의해 그런 확신에 도달하였다.”

▶ 병원치료인 수술요법 화학요법(항암제), 호르몬요법, 방사선요법 등의 치료를 한후 상기 대체요법을한 90명의 환자에 대해 2~5년의 재발확률을 관찰한 결과 현재 86명이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면역요법의 핵심적 열쇠라고 할 수 있는 NK세포(면역세포)의 활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4명의 환자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으며 판명되었습니다.

김수자원 오비츠 로이치 - 의학박사  
저 자 나가사와 오사무 - 의료 저널리스트  
편역자 황성주 - 의학박사

**암 치료 현장의 의사들이 증언한 50여 명의 임상 사례**

이치바시 클리닉의 이치바시 겐이치 원장  
유방암 4기로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아라비늑실란 38을 투여한 지 한 달 만에 NK세포 활성이 2배로 상승했고 종양 지표는 1/3로 떨어지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다. 또한 ‘만성 림프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하루 3회의 아라비늑실란을 투여하면서 3주 후에 백혈구 감사를 해보니 6만 5천에 달하던 수치가 정상 범위인 5천까지 내려온 놀라운 일도 있었다.

오모리 내과 앞메키 클리닉 오모리 원장  
대장암 수술을 받은 지 몇 년 뒤에 간으로 전이된 60대 환자는 암의 크기가 너무 커서 도저히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아라비늑실란을 투여한 지 일주일 만에 종양 지표가 내려갔고 그 뒤 암의 크기도 상당히 줄어들어 눈에 보이는 모든 암은 모두 저축해 낼 수 있게 되었다.

호시카와 후생 연금병원의 보우지마 도모루 박사  
폐암을 앓으면서 폐암 37인 64세의 남성이 수술 후에 뼈까지 암이 전이되었다. 이 환자는 몸이 너무 약해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아라비늑실란을 투여했는데 6개월정도 후에는 통증이 거의 사라지면서 암 세포의 크기도 줄어들었다. 또한 종양 지표인 ICTP도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다.

■ 구입 및 상담문의 (代) 545-7536 ■ 가격 8,000원